

‘도식성’과 ‘현실도피’ 원리로 우세종 된 대중문학

대중문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생산과 소비의 매커니즘 눈여겨 봐야

박기수 | 문학평론가

대중들이 대중문학을 즐겨 읽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중들을 유인하는 원리가 대중문학에 내장돼 있기 때문이다. 카웰티는 이 원리를 도식성과 현실도피라고 갈파했다. 현실세계의 혼돈, 불확실성, 모호함, 억압 등이 자기 나름의 도식성에 따라 단순명료하게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웰티는 이와 함께 대중문학이 대중들의 욕구실현을 위해 서스펜스, 감정이입, 가상세계 창조 등의 기교를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대중문학에 대한 새삼스런 관심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몇 가지 정서적인 반응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압박해 들어오는 대중들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 문학의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온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노여움’, 그리고 그런 시장 질서에 편입되길 희망하는 ‘부러움’까지 매우 복합적이고 동시적인 정서적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 권력에 편입되지 못한 작가나 장르가 예기치 못한 발행부수를 기록할 때마다, 문예지나 일간지를 통해 기획되는 대중문학 특집은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중문학은 ‘구성적’이고 ‘생성적’이다”

‘대중’(mass)이라는 말에 이미 엘리트적인 시각에서 폄하의 의미가 전제됐던 것처럼,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 역시 기존 문학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지극히 편협하고 수구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들은 대중문학이 순문학과 어긋난 정도를 보여주며 그것이 얼마나 함량 미달인가를 주장하며, 문학 위기의 주범이 대중문학인 양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와 같은 강력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대중문학의 베스트셀러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답은 자명하지 않은가. 그들의 대중문학

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잘못돼 있거나 그들이 지켜내고자 하는 순문학적 관점이 이미 낡아버렸거나, 아니면 둘 다기나다.

대중문학은 ‘실체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성적 개념’이다. 그것은 사회·역사적 문맥에 따라 대중들이 수시로 재문맥화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들의 취향과 수요가 끊임없이 변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대중문학에 대한 탐구는 당위적이고 가치론적인 평가보다는 존재론적이고 복합적인 문화 생산물로서의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 생산물에 대한 이해는 단지 최종 생산물(작품)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을 논의해야만 한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이다. 그동안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기획, 광고, 유통 과정, 수용 매체, 소비자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늘 텍스트 중심의 해석에 급급하게 되고 수시로 살아 변화하는 대중들의 취향이나 성향 따위들을 정치하게 분석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대중들의 호응과 판매 부수에 따라 대중문학의 성격이 결정되는 수동적이고 대중추수적인 일방적 구조를 형성해 온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중추수적인 구조는 비판적 견제나 그를 통한

새로운 전망 따위를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중문학에 대한 탐구는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을 다뤄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가령, 대중적인 검증을 마친 《퇴마록》(이우혁, 들녘)이나 《드래곤 라자》(이영도, 황금가지) 같은 작품들을 논의할 때, 기존의 서사문법이나 순문학적 코드만으로 접근한다면 ‘함량미달의 작품이 어쩌다 우매한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해 대박이 터졌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으며, 이런 관점으로는 대중문학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중문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싶다면 오히려 처음 발표 매체, 팬덤(fandom), 주 수용층의 연령별·계층별 이해, 동호회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수용자 비평, 그리고 그 아류작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런 다각적인 접근을 통할 때, 비로소 대중문학의 핵심이 되는 대중의 취향을 적실하게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문학의 특징

여기서 대중문학에 대한 실제 논의를 살펴보자. 앞의 글은 비교적 대중문학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뒤의 글은 다른 글에 비해 비교적 성실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최근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J.G. 카웰티는 《대중예술의 이론들》(박성봉, 동연)에서 대중문학의 특징을 ‘도식성’과 ‘현실도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예술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그는 대중문학의 ‘현실도피’는 ‘현실세계의 혼돈, 불확실성, 모호함, 억압 등이 자기 나름의 도식성에 따라 단순명료하게 하나의 완결된 체계로 닫혀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이것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불확실, 초조, 죽음, 실연, 전쟁, 좌절감, 박탈감, 압박감 등에서 질서와 안정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욕구며, 동시에 단조롭고 안일한 삶의 권태와 무의미함에서 흥미있고 강렬한 체험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서스펜스, 감정이입, 가상세계 창조 등의 기교를 활용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중문학의 문학적 가능성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현실도피의 가상적 체험을 제공하는 도식성의 역동적 가능성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대중문학은 1)기존의 가치와 세계관에 동조하거나 강화시키며, 2)사회구성원들의 이해 관계나 개인 내부의 가치관의 혼동에서 비롯되는 긴장과 갈등에 가상의 해결을 제공하고, 3)일상에서 금지돼 온 영역을 통제된 방식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4)사물을 보는 혁신적인 시각과 정통적인 시각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카웰티의 관점은 대중문학에서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 점, 대중문학을 정태적인 사회의 배설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문화 생산의 역동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했던 점 등의 미덕에도 불구하고 고급문학(순문학)을 전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환경 속에서 과연 순문학은 대중문학의 전범이 될 수 있는지, 순문학의 독자에 대한 영향력이 과연 대중문학을 압도할 정도의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독서시장 구조라면 대중문학과 순문학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아니 순문학이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즐기는 폐쇄적인 문화실천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순문학의 영향력 축소는 그 내부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상징투쟁을 가속화하지만 그것이 순문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활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킴으로써 기존 문학 제도권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우백의 <판타지 소설의 허와 실>(《문예중앙》 1999년 봄호)이라는 글이다. 그는 《드래곤 라자》를 중심으로 판타지 소설의 특징으로 무협지적 구성, 가상공간, 가상의 시대,



베스트셀러 가판대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 대중문학이 고급문학을 압도하는 오늘날의 독서시장 구조에서 더이상 그 둘 사이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고급문학의 존재를 위협할 뿐이다. 대중들의 문화향유 방식에 걸맞는 민첩한 적응능력 개발이 문학의 기득권자들에게 요구되는 시대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내부 풍경.

신화의 혼성모방적 차용, 철저한 구어체, 환상적 요소를 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은 이와 같은 요소들로 대중문학의 특성이 드러나느냐는 것이다. 이 글이 대중문학의 침범으로서 판타지 소설에 주목한 것이라면 이 분석의 결과를 통해 왜 대중들이 판타지 장르에 열광하느냐는 문제가 해명돼야 한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지나치게 소재 중심적이고 일반적인 결론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취향은 물론 판타지 장르의 특성조차도 제대로 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그의 글이 대중문학 논의에서 정치한 축에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문학에 대한 여타의 논의는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다는 암울한 결론이 나온다.

문화 향유 방식에 주목해야

대중문학의 원리를 고민하며 필자는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기존의 가치관을 확대 재생산하는 도식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대중들의 취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자본의 취약성을 리미티드 방식과 독특한 서사구조로 극복하고 있는 저패니메이션에 주목해보면, 대중문학의 원리가 보이지 않을까? 대중들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고급문화의 자양분을 텍스트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중을 선도하는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의 개방성은 대중을 단순한

소비자에서 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프로슈머(消費者, Prosumer)로 전환시키며, 이와 같은 프로슈머의 출현은 '취향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중문학의 원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향유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문학은 제도화 과정의 결과라고 했다. 그것은 고정적인 체계로서 문학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생성적인 측면에서 문학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대중문학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주도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것이 문학의 장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를 살펴야 하며, 그런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지금은, 문학의 생명력은 그 개방성에 있으며, 그런 적극적인 적응능력이 문학의 권력을 구축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